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어
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A]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워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물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뜰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A]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뜬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읽기 전 활동

(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보기〉입니다. 위 작품에서 ‘우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작품 속의 우물 속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을 읽을 때 우물의 등장과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홀로 외딴 우물을 찾아가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보기〉에서 화자가 우물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담아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화자가 바라보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등의 자연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나이는 당연히 화자일 것입니다. 화자는 홀로 우물에 와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상황이기에 우물에 비치는 사나이는 화자 자신입니다.

③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그런데 화자는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밉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화자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했어야 합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가 미워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나이는 자기 자신이기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나이를 보니 미워져 돌아가지만, 다시 또 그리워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미움의 감정을 가졌지만 가엾어졌고, 다시 미워졌지만 이제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감정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우물 속에는 화자가 우물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처럼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등의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화자의 모습을 보면 화자는 과거의 사나이, 즉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내내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다가 가엾어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추억처럼 느끼면서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위 작품은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된 작품입니다. 교과서 상에서는 윤동주라는 작가의 배경지식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

전에서는 <보기>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처럼 뽀뽀한 해설을 실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주어진 내용 안에서 화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위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미움, 가여움, 그리움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한밤중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의 개까지 짖습니다. 이 개 짖는 소리로 까 여 다 여 따위의 말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개 짖는 소리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섞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기러기가 떨어뜨리는 소리와 의좋은 그 소리는 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좋은 그 소리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내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소리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제리 아낙네들은 군산 목은장 가서 김치거러 등을 팔고 오는 인물들입니다. 김치거러 등을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팔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선제리 아낙네들의 삶의 모습이 고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까 여 다 여 하는 소리도 아낙네들이 내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뜰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한밤중에 십릿길을 더 가야 하고 빈 배 요기도 하지 못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든 삶을 사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아낙네들의 삶의 모습을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고 의좋은 한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아낙네들의 고된 삶의 모습을 말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선제리 아낙네들의 힘든 삶에 대해 말하는 작품입니다. 힘들지만 다같이 나누는 고생이고 의좋은 한세상이라며 아낙네들의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화자는 벚꽃을 따라가다가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나무가 시적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자가 나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그 나무는 시멘트 개울 구석에 뿌리를 두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덕더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는 봄이 되었음에도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명울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나무에 꽃불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길이 끝난 줄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그 나무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는 나무가 피어낼 꽃을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일으켜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김명인, 「그 나무」-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고 늦깎이 깨달음을 나무와 함께 얻기 위해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화자는 아직 자신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나무가 봄이 가기 전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수 있을 것이냐고 합니다. 이는 가을에 단풍을 피우는 여러 나무 사이에서 그 나무가 작은 단풍을 피우길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나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가 늦게 꽃을 피우는 나무를 보고 꽃을 피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감정을 잘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우물에 비추어 보면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 작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화자는 아낙네들의 삶이 힘들지만 화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의 화자는 꽃을 늦게 피우는 나무를 보고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가)와 (나)에서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에서는 화자가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가)와 (나)에서는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에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에서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태도는 나타나지만,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워하지만 가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라며 힘든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해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꽃을 늦게 피우는 나무를 안쓰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 세 작품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와 대결하거나 하려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제1연에서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후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제2연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등의 자연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는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늘은 지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다면 상당히 까다로웠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제3연 ~ 제5연에서 화자는 '한 사나이'를 미워하다가도 가엾어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모습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등장합니다. 화자는 자연의 모습을 말하면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추억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화자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존재 탐구를 끝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다면 더 이상 우물을 보지 않는 등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시에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 제6연에서 화자는 사나이를 보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

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우물은 하늘을 향한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위 작품에서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고향을 모태적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자는 '추억처럼' 사나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추억은 그리운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고향의 상징적 이미지와 충분히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모태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우선 [A]에는 대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대조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B]에서는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과 꽃 한 송이도 펼치지 못한 그 나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A]에서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등과 같은 유사한 구절을 병치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A]에는 '기러기가 떨어뜨리는 소리'라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A]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B]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 두 부분 모두에서 의성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까 여다 여'는 사람의 말소리를 표현한 것이지, 의성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 시오릿길
㉡ 의좋은 한세상
㉢ 꽃불 성화.
㉣ 난만한 봄길 어디.
㉤ 가난한 소지(燒紙)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낙네들이 '한밤중'에 '십릿길'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통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 ㉠: '끼리끼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끼리끼리' 고생을 나누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사는 아낙네들의 모습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화자는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스러운 불에 '꽃'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늦된 나무'가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빛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접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은 화자가 산에서 내려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봄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접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소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화자가 제자릴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재이지,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을 나타내는 소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 ㉣은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나무 곁에 서성거리면서 그 나무가 ㉣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을 '깨달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서 그 나무가 ㉣을 지퍼 울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주위에 단풍이 울창하게 피운 나무 사이에서 조그마한 단풍이라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기에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